

Investment Strategy 2026.9.1



글로벌

마켓 브리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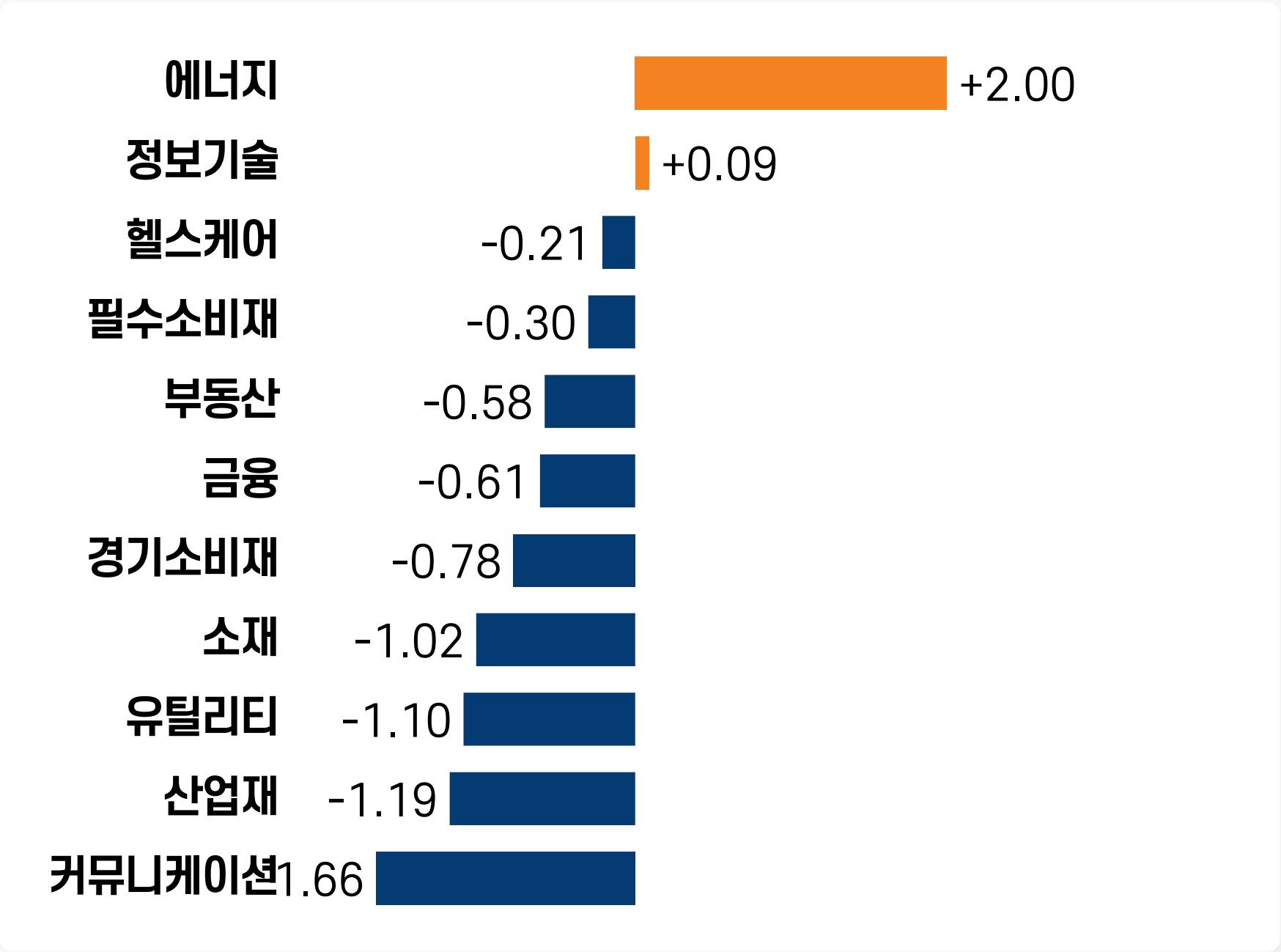
8월 마지막 거래일,
유가&금리 상승..미국증시 하락

미국증시 주요지수

지수	종가	등락률
다우존스 산업평균	53,185.90	-0.70%
S&P500	7,686.14	-0.33%
나스닥 종합	26,370.89	-0.12%
나스닥 100	29,456.97	+0.08%
러셀 2000	2,956.45	-0.54%
필라델피아 반도체	11,535.05	+0.57%
VIX	14.92	+3.40%

주: 작성 시점 기준

S&P500 업종 지수



주: 작성 시점 기준

미국증시 소폭 하락 마감 월간으로는 1~3% 상승

- ✓ 에너지, IT 섹터 제외 전 업종 하락
- ✓ 전반적 약세 압력에도 기술주 상대 강세로 나스닥 낙폭 제한적
- ✓ 8월 수익률: 다우 +1.34%, S&P500 +2.62%, 나스닥 +3.93%
- ✓ 9월 첫 주 고용 보고서와 지정학 이슈, 금리 향방이 주요 변수

주: 작성 시점 기준

미국-이란 공습 재개 유가 또 ‘꿈틀’

- ✓ 주말 미군의 이란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공습..이란, 즉각 반격
- ✓ 미국, 7월 24일 군사 공격 중단 후 경제제재 집중했으나 재 타격
- ✓ NYT “미군 공격, 대규모 공습 재개 아닌 제한적 범위 공격”
- ✓ WP “미군 수뇌부, 국방 장관에 ‘장기전 지속 불가능’ 우려 전달”

주: 작성 시점 기준

미 국채 금리 장기물 중심 상승

- ✓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장 중 4.75% 돌파, 1년 7개월래 최고
- ✓ 미 재무장관 베네통트 “국가 부채 문제, 경제 성장으로 돌파해야”
- ✓ 유가 상승에 장기 성장 강조 관점 맞물려 장기금리 중심 상승
- ✓ 트럼프 “미국 금리 너무 높아..세계 최저 수준이어야“..연준 압박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승 특징종목

테슬라

+5.51%

휴머노이드 로봇 '옵티머스' 생산
개시..완전 자율 주행 로보택시
'사이버캡' 양산형 모델 공개 임박

엔비디아

+1.48%

대만 팹리스 기업 미디어텍에 35억
달러 투자키로..AI 생태계 전반 걸친
투자 네트워크 확대, 강화

엑슨 모빌

+2.71%

미국-이란 무력 충돌 재개, 국제유가
2%대 상승..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
재돌파. 에너지주 동반 강세

샌디스크

+5.50%

키옥시아와 310억 달러 규모 공동
투자 파트너십 발표..이날 마감 후
MSCI 월드 지수 편입 예정

클라우드스트라이크 +5.77%

전분기 호실적에 전일 급등 이후 추가
상승, 최고가. “강력한 AI에이전트가
사이버 보안 SW 수요 강하게 견인”

스트래티지

+4.42%

지난 6월 말 이후 약 두 달여만에
비트코인 매수 재개..보유 비트코인 총
84만 5,050개

주: 작성 시점 기준

하락 특징종목

아마존닷컴 -2.50%

FTC, 온라인 소매 플랫폼 광고 가격 조작 혐의로 소송 제기

에이온 -9.53%

사모펀드 KKR로부터 경쟁사 USI 인수어런스 170억달러에 인수키로..인수 비용 등 부담

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-7.51%

일론 머스크 “스페이스X, 천연가스 터빈 블레이드와 베인 자체 제작할 계획”. GE베르노바(-1.47%) 동반 약세

PG&E -20.06%

캘리포니아주 의회, 산불 발생 시 개인의 전력회사 상대 청구 배상액 상한 제한 방안 입법 제외

일라이 릴리 -1.52%

면역 관련 질환 등 파이프라인 확장 위해 ‘메리다바이오사이언스’ 인수키로..인수 자금 부담

애플 -0.89%

팀 쿡 CEO 마지막 임기일. 후임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 존 터너스..앱스토어 총괄도 사임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상품 동향

WTI (10월물)	85.76달러	+2.83%
브렌트유 (10월물)	90.49달러	+3.02%

✓ 변동요인

미국-이란 무력 충돌 재개에 국제유가 재차 반등. 고유가 지속되며 미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 사상 처음으로 8월 한 달 내내 갤런 당 4달러 상회. 8월 마지막 거래일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4.08달러. 금값과 은값은 1%대 하락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채권 동향

미 2년물	4.3415%	-0.2bp
미 10년물	4.7500%	+3.2bp
미 30년물	5.2423%	+3.7bp

✓ 변동요인

유가 상승과 재무장관의 ‘성장 강조’ 관점 반영해 미 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. 단기물은 전 거래일 잭슨홀에서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매파적 발언에 11bp 급등한 여파로 일부 되돌림.
FedWatch, 연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전장 50% 후반대에서 66%대로 높여 반영.

주: 작성 시점 기준

외환 동향

달러인덱스(DXY)	99.414	-0.29%
달러-원	1,368.60	-3.90원
달러-원 NDF 1M	1,367.65	-0.40원

✓ 변동요인

독일 8월 CPI 상승폭 확대에 유로화 가치 상승. 전 거래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급등했던 달러는 급등 후 되돌림, 유로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하락. 전 거래일 160엔대를 넘겼던 달러-엔 환율은 160엔대 아래로 하락(엔화 강세). 전일 달러-원 환율은 13개월만에 1,360원대 진입.

Complian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